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T. 02-500-1915 / F. 02-503-7905

월간 식품정책

2012 10 월호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서비스

식품관련 통계·조사정보 ‘한자리에’ 검색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을 개설하고 식품관련 통계와 조사정보를 한자리에서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드분류 완료 통계표 바로 조회

기존에는 식품 산업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려면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주제별로 통계를 찾고, 일일이 코드를 분류해서 합산해야 하는 등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에서 제공하는 ‘식품통계’ 서비스는 원하는 주제의 통계표를 찾아 해당 표를 클릭하면 코드 분류가 완료된 통계표를 바로 조회하고, 필요시 다운로드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어 정보 이용자들의 중복 노력과 불편을

크게 덜어주게 된 것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은 여러 기관에 산재한 식품관련 통계 및 정보의 편리한 이용 뿐 아니라 식품기업의 경영, 마케팅,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초 통계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일단위 검색

FIS를 통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원당 등 21개 주요 원자재의 선물가격을 일일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주요 메뉴

구분	메뉴	내용
DB	국제 원자재 가격	수입의존도 높은 21개 농산물 일일 선물가격
	식품기업 세부정보	개별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정보
통계	식품통계	식품관련 산업 주요 지표 및 식품관련 통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표
동향	식품 시장동향	해외 식품유통 시장 동향 및 원자재 가격동향
	식품산업 조사정보	소비자태도조사, 품목별 세분시장 현황조사 등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식품 관련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주요 통계 지표와 더불어 스낵과자, 면류 등 13개 분야별 시장의 시장규모, 주요 제품, 소비자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식품산업 주요지표 등 주요 자료는 책자로도 발간해 주요 식품업체 및 도서관 등 200여 곳에도 제공해 정보소요자가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소매점의 POS데이터를 도입해 브랜드별로 주간가격 정보와 매출실적 정보 서비스를 신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의 접속은 네이버 검색창에 ‘식품통계’로 검색하거나, 식품포털(<http://www.foodinkorea.co.kr>)의 식품산업통계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02-500-1915)

3,600여명 식품·외식업체 종사자 교육

식품산업 인력양성 추진실적·교육 프로그램 안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외식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3600여명의 식품·외식업체 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 현재 실시 중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식품기업 혁신전략, 구매, 생산, 마케팅 등을 다루는 ‘식품산업 경영인·전문가 과정’,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전략에 관한 ‘수출과정’ 등 6개월 장기 4개 과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과정’, ‘이물관리 실무자과정’, ‘식품품질관리과정’ 등 15개 과정이 있고, 통학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한 사이버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식품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교육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이 있다.

2~3일 혹은 1주일 단위 단기과정으로는

주요 지면안내

- 02 전통주산업 활성화
식품외식융합자금 최대 80%까지 지원
- 03 한식세계화-한식 원형복원사업
2012 아시아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
- 04 수출 100일 비상대책 추진
해외 농식품 수출 바이어상담회 개최
- 05 해외 선도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10월 주요 투자유치 활동계획
- 06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분석 2
지역전략산업 성공스토리-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 07 농식품부, CJ제일제당과 MOU
한·중FTA 추진동향

전통주산업 활성화

판로·유통망 확대위해 다각적 노력

바이어간담회·도매상 설명회...교육기관도 운영

‘막걸리 열풍’에 이어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면서 관련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통주 산업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지만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 인식돼 체계적인 산업화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2010년 8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소주나 맥주 등에 비해 판로와 유통상의 제약, 낮은 소비자 인지도, 생산업체의 영세성 등 제약 요인이 아직 많다.

소비자 만족도 꾸준히 상승

그러나 막걸리의 경우 최근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 전통주 역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2009년 조사당시 6.99점에서 2010년 7.21점으로 2011년 7.26점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전통주 판로와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6일 ‘유통업체 술 담당 바이어와 전통주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전통주 취급매장에 대한 지원과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추진했다. 또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 상설매장을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통주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 교육기관으로 전문기관 2곳과 훈련기관 7곳을 운영중이며 언론을 통한 홍보지원, 전통주 박물관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 넷째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막걸리의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상암동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 전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서 소개할 계

획이다. 또 우수 전통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 입상업체에 대해서는 유명 국제 주류 품평회 참가 지원과 각종 홍보지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전통주 업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연리 3%의 시설 현대화 자금과 원료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 원료매입자금은 농업경영체는 연 3%, 일반업체는 연 4%로 지원된다.

해외진출 촉진·각종 규제 개선

한편 그동안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하던 요소들이 많이 완화됐다. 이달부터 전통주 통신판매가 가능한 홈페이지가 기존 우체국, aT사이버거래소, 제조사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까지 확대됐다. 또 인터넷 구매시 성인인증을 위해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던 것을 일반인증서까지 확대했으며 1일 1인 50명 구매량이 100명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과 농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02-500-1952) 

식품업체 생산시설 현대화·가공원료매입·소규모 창업 등

식품외식종합자금 최대 80%까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국내 농산물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금은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제조시설현대화·개보수자금, 가공원료매입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3년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이며 금리는 사업대상자별로 연 3~4%(농

어업인, 농어업법인은 3% 적용)로 융자한도는 총사업자금의 최대 80%까지이다.

한편 기존에는 식품안전 인증사업(HACCP 등)관련 시설 개보수 위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했으나 내년부터는 국내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소비하는 일반 식품업체의 시설 개보수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식품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지원 필요성, 수요현황 등 지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02-500-1947) 

제2회 염전컨테스트 결과

대상에 ‘HS병풍염전’ 선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2회 염전컨테스트 대상에 HS병풍염전(전남 신안 소재, 대표 이홍성), 금상에 월빙 소금밭(전남 신안 소재, 대표 김운태), 은상에 대흥 장창복염전(전남 영광 소재, 대표 장창복) 등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염전은 지난 7월 17일~8월 7일까지 공모를 거쳐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이번 컨테스트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한 환경의 염전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염전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02-500-1948) 

월간 식품정책

은 농식품 기업, 식품관련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단체 등 유관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월간 식품정책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ifaff.go.kr

한식세계화 - 한식 원형복원사업

한식·식문화 관련 고조리서·콘텐츠 발굴 DB화

한식 연구·산업화 기초자료 활용

한식세계화 사업은 한식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한식의 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경쟁력 강화, 홍보전략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식세계화 인프라구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식 원형복원사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인 한식 원형복원사업은 한식 및 식문화 관련 고조리서를 비롯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DB화해 관련 연구와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입 2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올 사업은 2011년도 '조선왕조 궁중음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조선시대 민간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과 '한국 근대 한식문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 아카이브 : 특정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둔 정보 창고

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상세해제집을 작성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대중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상세해제집은 분류작업을 통해 조선시대 민간음식은 500여건 이상, 한국 근대 한식문헌은 300여건 이상을 선정해 작성한다. 또한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자료를 통합해 디지털 서비스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을 통해서서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축된 자료의 전체목록을 비롯 발간일자 정보(표지, 목차, 판권) 및 링크를 통해 관련 자료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왕조 궁중음식 아카이브 구축' 이

외 2011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한식 및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DB구축'을 통해 고문헌, 한식관련 영상 등 목록 9000여건을 DB화 했으며 '세계화 유망 한식메뉴의 스토리텔링 소재발굴' 사업으로 비빔밥, 불고기 등 10대 한식메뉴에 대한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했다. 또 '북한지역 전통음식 조사·발굴'을 통해 평양, 황해도 등 6개지역 150여 가지의 대표음식들을 발굴했다. '역사성 있는 한식당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서서는 50년 이상된 한식당 100개를 조사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중이다.

미식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1512년 문을 열어 500여년 명성을 이어온 파리 '아르폴 레스토랑'을 비롯해 오래된 다수의 레스토랑을 관광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한식 원형복원사업을 통해 발굴·복원된 한식 및 한식 콘텐츠를 이용하여 관광문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개발 등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식 원형복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련 자료와 해당영상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02-500-1962) 

2012 아시아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5개업체 참가...한국관 2개부스 포함 12개부스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한 국내 중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12 아시아 프랜차이즈 박람회 (FRANCHISING & LICENSING ASIA 2012)' 참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주요 양념류·소스류 등 식재료 수출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식기·주방기기 등 식자재, 인테리어 시설물의 수출을 통한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중동 등에서 업체 참가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참관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권에는 한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참가업체들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및 동 지역들에 진출해 있는 국내 외식브랜드의 가맹점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5개 참가업체 중 (주)위두

(브랜드명 : 콩돈)와 (주)대대에프씨(브랜드명 : 보스바베큐)가 각각 JP페퍼다인 그룹, 씨 유니온(See Union Ltd)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에도 총 5개 업체가 참가하며, 한국관 2개 부스를 포함한 총 12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업체에는 부스비와 장치비, 기본비용 임차비 등을 지원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 전에 현지 계약법, 브랜드 홍보전략 등 업체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참가했던 (주)위두, (주)대대에프씨 외에도 (주)바인에프씨(브랜드명 : 쉐프의 국수전) 등 3개업체가 신규로 참가할 예정이다. (02-500-1964) 

‘제10차 수출대책회의’...‘수출 100일 비상대책’ 추진

관촉전 · 박람회 · BKF 개최 수출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수출 100일 비상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달 24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기관별 수출 100일 비상대책’을 주제로 제10차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검역검사본부, 농협중앙회 등 수출 관련 기관과 CJ제일제당, 대상FNF, 오투기, 빙그레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100여일이 남은 시점에서 그간 수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aT는 이 자리에서 ASEAN을 비롯한 아세안, 미국 등 수출호조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110회, 박람회 67회,

해외홍보 87회 등을 집중 추진하고 대규모 바이어 초청행사인 BKF(Buy Korean Food)를 개최해 26여개국 120명의 바이어와 200여 수출업체의 1:1 수출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출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밤 등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물류비 지원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수출단가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검역검사본부는 잔여기간 동안 연중무휴, 수출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배·파프리카·딸기 등 수출주력품목에 410억원의 수출활성화자금 지원과 미국·동남아 등 해외판촉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J제일제당, 대상 FNF,

오투기, 빙그레 등 수출업체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생산설비 투자 확대, 매장 입점 확대 등을 추진해 남은 기간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우리 농식품에 대한 친근감을 위한 시식·관촉행사 등의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홍보대사 선정시 수출업체 의견반영

특히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K-POP 가수 등 한류스타의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수출확대를 위한 소비층 확대 및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홍보대사 선정 및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수출업체의 의견을 사전(13년 5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유로존 경제위기가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태풍 피해 등 국내외 교역환경이 수출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유관기관과 업체가 주어진 시간과 역량을 집중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02-500-1959) 

해외 농식품 수출 바이어 상담회 개최

Buy Korean Food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 10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규모 바이어 초청행사인 BKF(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6개국에서 초청된 135명의 바이어와 171개 수출업체가 1:1 수출상담을 진행해 600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초청 바이어는 일본, 중국 등 기존 주요 수출시장을 비롯해 재외 공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남미, 중동지역 등 신규시장의 바이어도 약 50여명 포함됐으며, 수출업체는 공모를 통해 바이어와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참가토록 했다.

참가 수출기업의 FTA활용 확대를 위해 한·미, 한·중, 한·EU FTA 전문 현지

관세사, 변호사를 초청해 FTA 활용 관련 수출업체의 의문사항을 해소했다. 아울러 초청 바이어들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해

26개국 135명 바이어 171개 수출업체가 1:1 상담

남미, 중동지역 등 신규시장 바이어들 대거 초청

참가 수출기업위해 FTA(자유무역협정)상담센터 운영

도 제고를 위해 상담장 내 참가업체 제품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10월 10일에는 식문화체험 및 생산지(공장)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상반기 BKF(14개국 95명 바이어 초청, 4500만달러 상담실적)

에 이어 추진된 이번 행사를 통해 정기적인 수출업체와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으로 직접적인 수출 증대 및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향후 해외바이어 초청 대상 선정 시 신규 바이어

비중을 보다 높이고 수출업체의 선호 지역·품목·유통망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별·부류별 수시 바이어 초청을 확대해 시장별 유통품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02-500-1959) 

해외 선도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북·남미기업들 푸드폴리스 성공 가능성 높이 평가

최근 북·남미 식품기업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및 지리적 장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동북아 식품허브로써 푸드폴리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국가 식품클러스터투자유치단의 북·남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푸드폴리스 투자에 큰 관심

투자유치단은 브라질의 제이비에스, 브라질푸드, 말프릭그룹, 디아스브랑코, 아데코아그로와 미국의 콘아그라푸드, 웰스프링스 등 식품기업을 방문해 장관 서신을 전달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제이비에스 본사 제리이사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동북아시아 진출을 위해 푸드폴리스의 인센티브와 기업경영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콘아그라푸드는 11월 9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인 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푸드폴리스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과 MOU

투자유치단은 이와 함께 9월 25일 농식품분야 미주권 최고대학 캘리포니아 데이비스(UC Davis)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



▲ 미국 콘아그라푸드 방문

약을 통해 두 기관은 R&D공동 연구와 상호 인력교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식품소재전(FISA)’에 참가해 미주권 350개 식품기업과 1만명 이상의 식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관 운영과 세미나 참가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유럽 등 방문

특히 투자유치단은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유럽 식품기업을 방문해 푸드폴리스 투자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먼저 푸드밸리에 있는 식품의 향 첨가제 생산 세계 1위 식품기업인 지보단(매출 5조원)을 방문한 결과 푸드폴리스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향후 다시 만나 투자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스 매니저는 “한국 의 수산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며 푸드폴리스 진출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유아 유제품 분야 선두기업인 미드존슨(매출 3조원) 릭벤상무는 한국과 아시아 유아 유제품시장 성장성에 주목하고 공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투자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포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코린의 경우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진출여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푸드밸리 사무국과 니조식품연구소를 방문해 공동포럼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월드푸드모스크바서 투자유치 활동

한편 투자유치단은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2012 월드푸드모스크바(World Food Moscow)’ 식품대전 기간동안 미라토그, 임나포크, 로코라빈, 코한텃트 등 20여개 기업 부스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인센티브 설명 등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기업들 중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해외 진출에 관심이 높은 중견기업을 타깃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경우 투자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02-500-1922)

※ 푸드폴리스 입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직접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주요 투자유치 활동계획

◆ 투자유치관 운영

- 일본 도쿄 HI-Stec 투자유치(10.3~5)
- 프랑스 파리 SIAL 박람회(10.21~25)
- 전주 국제 발효엑스포(10.18~22)

◆ 포럼·심포지엄 개최

- 스웨덴 Top packaging 포럼(10.17~18)
- 벨기에 Foodforce 포럼(10.25)

제2회 국제 식품클러스터 포럼에 초대합니다

‘세계 인구 변화와 글로벌 식품소비 대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이 개최됩니다. 세계적 석학과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식품 클러스터 관련 주제 강연을 펼치게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 11. 14(수)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대연회장)

◆ 문의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2-500-2193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분석 2

기능성평가센터 등 3대 핵심 R&D시설 구축

연구개발에서 시험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능성을 갖춘 최상의 상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3대 R&D센터를 갖추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글로벌수준의 최첨단 장비

산업단지 내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지원센터 등 6개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가공, 제조, 유통까지 일괄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시설과 장비는 글로벌수준의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맛, 기능 등 식품의 품질에 대해

과학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안전센터에만 동결건조기, 초음파교반기, 전자코 등 총 233종의 장비를 갖추게 된다. 또 식품관련학과 학생의 인턴프로그램 개발로 현장실습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해 3대 R&D센터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우선 R&D비용 지원

더 나아가 입주기업 우선으로 6년간 총 870억원 규모의 R&D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연구비용 절감과 고품질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푸드폴리스를 대표하는 6개 기업지원시설은 기업 혁신의 핵심시설로

정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 식품연구소와 협약 '식품과학벨트' 구축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신속한 정보제공 등 제품개발과 수출입 등 기업의 사업 방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대학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및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식품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업무협조 MOU를 체결한 캠퍼 비알아이 연구소, 니조 식품연구소와도 공동R&D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근 전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6개 국책식품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대덕연구단지, 새만금이 '식품과학벨트'를 구축하고 지원센터 내에는 '푸드네트워크 지원본부'가 30~40여 개 식품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02-500-1922) 

성공 Story

지역전략식품산업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는 오메가-3 성분이 첨가된 사료를 사용해 프리미엄 포크 '마블로즈'를 출시하고 있다. 기존의 돼지고기와 달리 마블링이 풍부하고 돼지냄새가 나지 않으며, 육질이 부드러우게 특징이다. 고품질 양돈클러스터는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위는 생햄을 만들거나 가공햄으로 유통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생햄은 '벨라몽'



오메가-3성분 프리미엄 포크 맛보는

'돼지카페' 운영...친근한 이미지 부각

으로, 가공햄은 '참지음'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판매했다. 사업단은 작년에는 98억원, 올해는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도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양돈으로 다가가고 아이들에게 축산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돼지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의 관광·체험 아이템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전문 매장을 설립해 사업장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다. 현재 1, 2, 3호점의 돼지카페는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가능하고 도시인에게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02-500-2195) 

해외 식품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2 네덜란드 - 푸드밸리

식품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세계 고급인력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네덜란드 푸드밸리이다. 이곳에는 하인즈, 하이네켄 등 70여 개의 식품기업과 20여



혁신적 아이디어 공유 등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개의 연구소, 1000개의 연관업체가 입주하여 매년 6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식품 거대 기업과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핵심기관은 바로 와게닝겐대학이다. 와게닝겐대학은 유럽 최고 농업분야 연구개발(R&D)·교육기관으로 클러스터내외의 기업들과 지식이전 및 공유 활동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과 창업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푸드밸리 소사이어티(Society)'와 같은 학습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아이디어 공유, 사업 동향 교환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이처럼 푸드밸리는 대학과 니조(NIZO)·티엔오(TNO) 등 연구소 중심의 발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푸드밸리 사무국'이라는 전담기관 설치,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미래식당 운영 등이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02-500-1922) 

농식품부, CJ제일제당과 MOU

국가식품클러스터에 CJ식품연구소·공장 추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9월 25일 CJ제일제당과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 입주를 위한 6만6000㎡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맺은 CJ 제일제당은 연간 6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과 바이오산업 분야 대표 기업이다.

CJ제일제당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현대식 가공식품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과 일류식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별 식품융복합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CJ제일제당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CJ제일제당과의 투자협약체결은 지난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과 지난 7월 종합계획 발표 이후 맺은 첫 투자협약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선

CJ제일제당·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협약 체결



도기업 투자유치에 신평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02-500-1922)

※ '12. 9월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 : 55개 기업·연구소(국내 41개, 해외 14개)



한·중 FTA 추진동향

미국과 EU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5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됐다.

글로벌 FTA 허브국가 성장 기회

한·중 FTA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1위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 중국내 우리기업을 보호하며,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5월 4일 양국 통상장관회의 협상개시

한·중 FTA는 민간공동연구('05~'06)와 산·관·학 공동연구('07~'10.5)를 통해 FTA효과 등 타당성 검토와 함께 우리 농수산물분야의 민감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지난 5월 4일 양국 통상장관회의

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출범했다.

다양한 민감성 보호장치 마련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2단계 협상구조를 취하고 있다.

통상적인 FTA는 협상시작과 함께 개별 상품에 대한 개방수준 및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나, 한·중 FTA는 협상진행을 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의 개방 수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협상의 틀(Modality)을 논의

금까지 3차례 협상을 통해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농수산물의 초민감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적극 육성

또한 한·중 FTA를 계기로 최근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 도모하고,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피해예상분야에

민감분야 보호위해 2단계 협상구조 진행

'협상의 틀' 논의 후 '합의된 틀'로 전면적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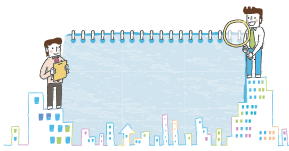
피해예상분야 국내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

하고, 2단계에서는 합의된 틀(Modality)을 기초로 개별 상품, 각 분야별 협정문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1단계 협상에서 상품분야는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초민감 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

대한 국내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WTO 출범이후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319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7개국과 협상해 10건의 FTA를 체결했고, 한·중 FTA를 포함해 8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02-500-2258)



10월 주요행사 캘린더 CALENDAR

☑️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 2(화) / 메가박스(코엑스)
- 내용 :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카라, 장서희) 및 농식품 홍보영상 시상회 등

☑️ 농식품 수출 대규모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9(화) / aT센터(양재동)
- 참석자 : 바이어 26개국 137명, 수출업체 170개 참석
- 내용 : 농식품 수출 제품 홍보관 · 인기 신상품관 및 FTA활용 상담센터 운영 등

☑️ 제19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 기간 및 장소 : 10.13(토)~10.17(수) /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 주요내용 : 김치직거래장터, 김치경연 · 아카데미, 올해의 김치콘테스트, 김치 시민왕 콘테스트 및 시식 · 체험행사 등

☑️ 해외 전문기관 초청, HACCP 평가관 전문가 양성교육

- 기간 및 장소 : 10.15(월)~10.18(목) / 천안 상록리조트
- 농장/도축장 등 분야별 HACCP운영계획 및 개설방법 수립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 기간 및 장소 : 10.18~10.22 / 전주월드컵경기장
- 주요내용 : 발효문화관, 발효산업관, 발효마케팅관, 세계발효관 운영, B2B 수출구매 상담회, 국제발효컨퍼런스,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 개최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관 운영

☑️ 제31차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18(목) / 부산(노보텔)
- 참석자 : 한·일 수산물 무역과장(원양정책과장)의 담당, 외교통상부, 주일수산물관 등
- 의제 : 한·일 양국간의 수산물 교역에 관한 상호 관심사항

☑️ 프랑스 파리 SIAL 박람회 클러스터 투자유치관 운영

- 기간 및 장소 : 10.21(일)~25(목) / 프랑스 파리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관 운영, 기업 방문

☑️ 서울고메

- 기간 및 장소 : 10.26(금)~11.3(토) / 서울시내 주요호텔 등
- 주요내용 : 세계 유명셰프(미슐랭 3스타 등)를 비롯해 해외 국내외 전문가 및 기자단이 참석하여 한식강좌, 요리시연, 미디어 컨퍼런스, 한식패투어 등을 진행

공모사업 안내

☑️ 지역전략식품산업 '14년도 지원대상 사업단 선정 계획

- ▶신청방법 : 시도별 3개 사업단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간 : 10. 31까지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현장평가 · 프리젠테이션 (11~12월)

※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농가로부터 수탁 · 매수하여 판매 대행하는 경우), 가공식품 생산이 없는 사업단(H/W 시설이 없는 사업단 포함), 사업 종료 후 해체 가능성이 높거나 자립운영이 불가능한 사업단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2012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R&D)

- ▶추진목적 : 농수산물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지원분야 : 식품분야 18대 핵심기술 관련 자유응모과제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27억원 내외
- ▶공고기간 : 10. 10(수)~11. 12(월)까지, 34일간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 기간 및 장소 : 10.25(목)~10.28(일) /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 주요내용 : 우리술 품평회, 전통주업체 산업전 및 우리술 특별 전시관 등 전시 · 홍보, 막걸리 빚기 등 체험행사 및 문화 공연 실시
- * 2012합살 막걸리 전국 동시 판촉전(10.25)

☑️ 농식품 안전 소비자정책 토론회

- 기간 및 장소 : 10.29(월), 10.30(화) / 전국은행연합회관
- 주관 :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 농식품 안전 및 국가인증제도 관련 토론 및 주제발표

☑️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전국순회 박람회

- 기간 및 장소 : 10월말~11월 초 / 부산 등 7개 지자체
- 주요내용 :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주요 콘텐츠(미각교육, 농부텃밭 등) 전시 및 체험 지원 등

☑️ 북한음식 조리인력 양성교육 실시

- 북한지역의 향토음식을 활용한 세계화 가능한 상품개발 교육
- 교육생 모집 : 10월(40명), 교육기간 : 11~12월

월간 식품정책

10월호에는 1면에 목차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독자 의견과 한 · 중 FTA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02-500-1915)